

지식정보화사회 조성을 위한 주부의 인적자원개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가정과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An Education Program for Housewiv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ward the Knowledge Informatization Society.

: For the Social Integration and a Solution of Digital Divide Between Family and Society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이 기 영**

우석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부
부교수 이 승 미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부교수 송 혜 림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Lee, Ki-Young

Division of Child & Family Welfare, Woos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Seung-Mi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ong, Hae-Ry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contents and effective methods of educational program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cused on the full-time housewives. For this purpose the case interviewed with 24 professionals and management leaders of women education field are performed and 445 questionnaires from full time housewives who participate in at least one education program a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llowed :

1. The most preferred programs are sports/health program(28.8%), leisure program(26.5%), household income management program(15.9%), culture/arts program(15.2%) in percentage order. And the first preferred motiv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programs is the self development(38.4%).
2. The positive effect of program is founded more with participants in family oriented program and society oriented program than in individual oriented program. And the satisfaction degree of participants in family oriented program is higher than in individual/society oriented program.
3. The degree of demands for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is higher than the demands for program installations and program supplying methods.
4. In the area of effectiveness methods the demands for program systematization according to program level are most referred.

▲주요어 : 주부교육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 for housewives),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협동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2001-042-D00094)

** 주저자 : 이기영(leek@snu.ac.kr)

1. 문제제기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화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노동, 자본 및 토지 등과 같은 1차 생산요소를 기초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1차 생산요소 뿐 아니라 기술, 과학, 정보 및 지식과 같은 2차 생산요소를 기초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이무근, 2000). 그러므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2차 생산요소의 핵심이며 고갈되지 않는 자원인 인적자원이 중시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인 인간노동력이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한다(김재인 외, 2001) 즉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기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인적 자원 형성의 과정 및 형성을 위한 기초능력, 이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이 사회구성원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인적자원의 개발이 핵심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시대적 현상이다.

인적자원의 개발문제는 경제학, 교육학, 경영학, 교육인류학, 자연과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인적자원의 개념과 인적자원개발의 의미, 각 학문영역에서의 접근방법에 관해 다학제적 접근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데, 대체로 인적자원개발과 유사한 기존의 개념으로는 훈련과 교육, 사회화로 요약된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될 수 있다.

한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 및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고루 주어지지 않아, 일정한 사회구성원 집단간 지식·정보격차¹⁾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간 지식·정보격차에 주목할 때, 특히 성별에 따른 격차를 지적할 수 있다. 일단 정보화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 지식정보화

에 있어 남녀간 격차는 지식·정보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통합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여성의 지식·정보습득 및 활용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에 따른 정보격차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여성이 그만큼 생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갖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여성의 열악한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기혼여성인 주부는 심각한 정보취약계층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조정문, 2000; 정숙경·김인순, 2001)이 현실이다. 주부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만을 대상으로 보면 남녀간 정보격차는 훨씬 감소한다는 지적(정숙경·김인순, 2001)에서 시사하는 바는 살림을 수행하는 주부, 더 나아가서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지식·정보격차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부, 그 중에서도 전업주부의 사회로부터의 소외 및 정보격차현상은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여성교육분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여성교육의 초점이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직업능력개발에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여성교육이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여성의 의식향상, 능력개발, 인간화이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이를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의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정책-모성보호제도, 고용할당제, 직장탁아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관심이 취업여성에 집중되는 반면, 주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업주부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적인 가정 내에서 가정살림을 담당하는 전업주부는 일차적인 관심이 남편과 아이문제 등에 국한되어 있고, 사회의식이 부족한 채 가족이기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주권 없는 소비자로서 상품시장에 이용되는 경향이 심한데, 전업주부의 경우는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며 가정살림을 전담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통한 가계경제수준 과시, 전문화된 소비자의식과 상품에 대한 정보와 비판력 결여 등이 혼합되어 과소비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김선미·이승미, 2000).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주부의 인적자원 개발의 기회 제한, 사회의식 함양의 조건 미달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는 주부를 다양한 사회문제-가족이기주의, 과소비문제, 사교육 열풍의 주역 등-의 주범으로 비난만 할 뿐, 이를 지양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업주부의 문제는 가정과 사회를 연계시켜줄 조건의 결여,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결여,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의식의 부족 등으로 축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인간에게 있어 공·사 영역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는 사적인 가정생활에 머물러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는 소외되며,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1)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상황, 계층, 지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나 단절이 발생하는 것 혹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사회집단간 격차를 의미(정숙경·김인순, 2001:3-4)하며, 따라서 지식·정보격차의 개념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의 정보화와 관련된 2001년도 여성부의 보고(통계청, 2001, 2000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여성은 6세 이상 전체 여성의 44.8%, 남성은 58.5%로 여성이 낮다(조희금 외, 2002:36에서 재인용). 또한 여성정보화의 현황을 분석한 선행연구(김미량, 2002)에서 인터넷이용률을 보면, 2001년의 경우 남성의 71.8%, 여성의 57.8%로 성별 차이를 보이며, 이 중 주부의 이용률은 4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남성, 가정-여성의 이분법적 역할분담과 구도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 남게되는 큰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 의식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문제는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현재에도 많은 주부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업주부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다양한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주부의 여가활동이나 자아개발을 위한 내용으로 표면적으로 등장하지만 상업기관의 이윤추구적 목표로 인하여 주부들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복지관이나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들은 주로 기능중심의 교육이며(김재인, 2001), 통합적인 가정살림에 대한 관점과 능력 그리고 이를 전문화시켜 취업이나 자원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속성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주부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적 차별화가 심하여 계층간 차이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주부의 목표(여가선용, 취업준비, 가정살림정보 등)에 따라 적절한 가격과 내용으로 제공되는 다양성도 부족하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화사회를 위한 주부대상의 컴퓨터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상업주의적이고 무분별한 정보제공으로 오히려 주부들의 시간낭비와 소비를 조장하고, 심지어는 가정살림에 더욱 묶이게 하는, 즉 가정살림의 표준을 상승시켜 여성들을 더욱 더 가정살림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지식정보화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전체 주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업주부의 비중으로 볼 때, 그들의 인적자원활용의 차원에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를 토대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전업주부집단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성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주부교육에 대한 전문가집단과 사회교육기관의 운영자 집단을 중심으로 주부교육의 개념, 주부교육의 범주와 구성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교육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전업주부들의 교육참여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전업주부집단의 교육프로그램 특성 및 내용에 관한 요구도, 활성화방안을 분석하여 주

부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요구도분석과 활성화방안을 토대로 주부교육의 프로그램성 원리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먼저 지식정보화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주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주부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여성교육분야에서의 여성교육의 개념과 교육내용, 여성교육기관의 현황과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제인 주부교육의 개념 및 범주, 요구도 분석을 통한 주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대신하고자 한다.

1. 지식정보화사회의 인적자원개발과 주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1) 지식정보화사회의 인적자원개발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영역은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추상성과 확장성, 접근시각의 다양성,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수혜자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시공간적 차이 등으로 매우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이유는 첫째,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교육, 개발, 훈련 등과 같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고, 둘째, 과거에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기업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정, 학교, 기업, 국가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셋째, 인적자원개발의 수혜자를 개인, 가정, 기업, 국가 중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및 영역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넷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학제간 접근에 의해, 인적자원개발에 접근하는 시각, 즉 인적자원개발 관련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을 다각도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무근, 2000).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책포럼인 “인적자원개발:다학문적 접근”(2000)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자연과학, 교육인류학, 사회학에서 사용되어왔던 유사개념을 검토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의 협의의 개념은 한 조직내에서 직무성과의 향상 가능성 및 조직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개발(ID), 조직개발(OD), 경력개발(CD)을 통합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학습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적자원개발의 광의의 개념은 기존 조직차원의 교육·훈련·발전을 증진한 차원에서 더욱 확대된 국가차원에서 기초능력, 기술력, 정보력, 도덕적 성숙 등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국가·사회적 제반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광의와 협의의 개념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협의의 개념은 주로 기업내 교육으로 제한되는 반면 광의의 개념은 대상이 기업 뿐 아니라 국민, 가정, 사회, 국가로 확대된 개념이다. 또한 협의의 개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광의의 개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직업준비교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요체가 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과 관련지어 볼 때,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을 개인, 가정, 사회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부 역시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주부 인적자원개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논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주부, 그 중에서도 가정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앞서 간략히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은 기혼여성, 그 중에서도 전업주부이다. 그렇다면 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주부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소외될 소지가 더 많은가의 문제는 주부집단 특히 가정살림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인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혼여성의 정보불평등에 대한 연구(정숙경·김인순, 2001)에서 연구자들은 기혼여성집단이 정보취약계층이 되는 요인으로, 지식·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강한 요구, 부업이나 직업과 관련한 적극적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생활에서의 정보욕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즉 시간적 여유와 동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부집단은 지식·정보에 도달하여 자신의 인적자원을 개발할 시간 및 동기에 있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는 주부집단이 지속적으로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몰입되는 결과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된 선행연구(김선미 외, 2001; 김선미·이기영, 2002)에서도 노동력의 세대적·일상적 재생산의 주체이면서도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전체 사회 구조상 소외된 집단으로 공적인 관심을 갖지 못했던 기제를 주부 인적자원개발의 부족에서 들고 있다. 또한 주부의 인적자원이 저개발·저활용되는 기제의 중심을 주부의 자리가 사적인 부문에 고

립되어 있는 것에서 찾고 있다. 연구자들은 주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의 한 기제로 주부사회교육을 들고 있으며, 여성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보 및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부의 정체성 연구(송혜림, 2002)에서는 주부들이 가정내 지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나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전업주부의 활동이 가정에만 머물면 안 되고, 사회적 통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주부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차원에서 주부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같은 주부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은 가정살림의 주체로서 주부가 경험하게 되는 지식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2. 여성교육의 개념과 범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하는 주부교육은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교적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교육의 개념과 범주를 고찰해봄으로서, 주부교육의 개념과 방향, 범주를 규정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교육의 개념과 범주, 교육기관의 프로그램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교육의 개념

여러 가지 문헌과 관련 자료에서는 여성교육, 여성평생교육, 여성사회교육 등으로 그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부집단에 초점을 맞춘다면 포괄적인 여성교육보다는 구체적인 여성사회교육 혹은 여성평생교육의 개념이 보다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김재인 외 연구자들(1995)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여성사회교육을 '여성을 주 대상으로 여성의식을 함양하고,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평등 평화 발전을 구현하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여성사회교육은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이거나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에게 주어지는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재인, 1998). 여성평생교육도 여성사회교육과 유사하게 정의된다. 여성평생교육은 교육이 일어나는 장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체계 내에 속하지 않는 교육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하며, 대상 측면에서는 여성의 학습경험 재구성에 관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이외의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김재인 외, 2001). 개념으로 볼 때, 여

성사회교육과 여성평생교육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그 교육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여성의식을 함양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기충족감을 갖게 하여 자아를 실현시킴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인간화와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활동으로 본다. 즉 의식향상, 능력개발, 인간화를 통한 사회변화 나아가 개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김재인, 1998). 유사하게 여성평생교육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사회의 지향성을 더욱 반영하여, 여성자신의 자질향상, 자기충족, 사회적 활동에의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의 주체를 양성, 여성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남녀평등의식의 고양으로 설정되고 있다(김재인 외, 2001). 여성평생교육의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사회교육이나 여성평생교육은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향상 그리고 사회적 통합 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인적자원 개발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결정적 과제가 된다.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와 연결되며, 따라서 주부교육은 이러한 차원에서 주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사회교육 및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주부교육 역시 주부(집단)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인 주부교육은 기존의 여성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과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그 주요한 차이점은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교육목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여성사회교육이나 여성평생교육의 대상자인 여성은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자질향상이나 자기충족, 그리고 직업훈련 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주부교육의 대상자인 주부는 세가지 차원의 체계-개인적 차원, 가정차원, 사회적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자 여성으로서의 주부 자신, 가정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정내 역할담당자,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목적은 여성사회교육의 목적과는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집단과 운영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근거로 주부교육의 개념을 연구결과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2) 여성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주

여성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틀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의 개념정의 하에 범주화된 분류를 보면, 크게 여성의식교육, 직업·기술교육, 여가·교양교육으로 구분된

다. 여성의식교육의 주요내용은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도력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여성의 성차별, 여성문제, 여성운동, 여성발전,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로 여성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김재인 외, 1995). 최근에는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주부교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사입당학당' 등(한국교육개발원, 1993)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로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유형으로는 직업훈련기관에서의 훈련, 기업체내 훈련, 여성단체 및 여성회관 등에서의 기술보도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한국여성개발원의 직업훈련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직업훈련은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기술교육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직업의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1987년부터 양재와 기계자수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지향적인 기술에서 벗어나고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92년부터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가정탁아모, 여성소규모사업경영자, 전문결혼상담원,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김재인 외, 1995). 마지막으로 여가·교양교육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그 요구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사회교육에는 부모역할교육, 가정경제관리법, 주부대학, 가정의례, 생활예절교육, 가족생활교육, 평등부부, 가족유형별 교육, 가정경영교육, 생활기능교육, 소비자교육,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상의 세 가지 교육내용유형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사회교육의 주요 목표가 여성의 남녀평등의식 제고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부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기존의 가정관리학분야에서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교육대상이 다양하지만, 가정살림이 전담자인 주부가 주요대상인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정관리학분야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세부주제-부부관계개선, 부모자녀관계향상, 시간관리, 가계재무관리, 가정폭력 등-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승미, 1999)도 많지만, 통합적으로 가정관리학분야를 접근한 선행연구(임정빈 외, 1997)를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개선, 가정생활개선,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소비생활개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노후생활개선, 건강관리, 주생활관리,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가정생활관련 법률상식, 가정소득증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생활문화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는 가

정관리학, 주거학, 의류학, 식품영양학 등의 연구분야를 고려한 것으로, 가정생활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즉 그 목표를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 운영 주체로서의 주부에게 여러 가지로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의 주부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예를 들면 주부의 자아정체감과 여성의식 등-, 또한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부를 생각할 때,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사회적 지향성/가치 등과 같은 내용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부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할 때는,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가 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러한 목표가 적절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개인-가정-사회의 균형을 취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여성교육프로그램의 제공기관 및 실태

여성교육프로그램의 제공기관은 매우 다양한데, 선행연구(김양희 외, 1994; 김재인, 1995)에서 선택된 교육기관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성사회교육 현황을 분석한 연구(김재인, 2001)에서는 교육기관을 여성사회교육 전담기관, 주교육 대상이 여성인 사회교육기관 그리고 기타 여성이 참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기관으로는 여성사회교육 전담기관의 경우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 농협 주부대학, 여성인력개발센터, 주교육대상이 여성인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구민회관(자치단체), 신문사/방송사/백화점/종교단체 등의 문화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여성단체, 일반학원을, 기타 여성이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기업체연수원, 국공립 연수원, 정부투자기관 연수원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연구(박성정 외, 2001)에서는 여성전담 평생교육기관-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단체, 농협 주부대학-과 일반 평생교육기관-대학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복지관, 지자체 시설, 공공 인정 직업훈련기관-으로 구분하여 여성평생교육차원에서 각 교육기관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여성 생애학습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오노 테루코, 2001)에서는 여성교육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교육위원회, 공민관, 청소년교육시설, 여성교육시설, 문화회관, 생애학습사회교육관계법인, 문화센터 등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교육프로그램의 참여실태에 관해 참여동기, 참여비율이 높은 프로그램내용, 참여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교육프로그램의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여성의 문화활동실태를 다룬 선행연구(김양희 외, 1994)에서는 참여동기의 경우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취미/교양, 활동 자체가 좋아서, 창조적 일로 자기 표현, 기분전환/

정서안정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주된 연구대상을 주부(기혼여성)로 하여 구민회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분석한 연구(양애경, 1998)에서는 참가목적의 경우 여가활용을 위한 개인적 취미생활이 가장 높고 자신의 개발과 발전, 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 전문적 기술/각종 정보 습득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아실현적 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애경(1998)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비율에 있어 생활체육, 미술, 음악, 의식주생활, 교양대학, 건강관리,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삼근(2001)의 연구에서도 인기강좌 순위에 있어 생활·취미교육이 1순위이며 그 다음이 직업·기술교육, 예술·교양교육 그리고 사회의식·여성의식교육의 순으로 나타나 취미/여가차원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김양희 외, 1994)에 의하면 문화활동의 영향으로 즐거워짐/스트레스 줄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성취감과 자신감, 적극적으로 살게 됨, 자신을 표현할 기회, 사회 보는 시야 넓어짐, 타인의 인정, 사람을 사귀게 됨, 인간관계 원만 등의 순서로 나와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여성교육의 문제점이나 불만사항,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양애경(1999)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불만사항으로 프로그램의 기간, 시설, 운영방법, 내용, 위치, 관계자 등의 순서로 지적하고 있어 세부적인 운영방식의 변화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교육부, 2002)에서는 여성평생교육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교육대상자인 수요자의 측면으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시간 부족, 비용 부담, 자신감 부족, 정보 부족 및 접근성 저조, 가족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측면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전문성 부족, 교육결과의 활용성 미흡, 강사의 성차별 의식, 기관의 여성평생교육 문제, 교육기관간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의 중복, 기관간 교류 부족, 재정 부족, 탁아서비스 미비, 인력의 여성교육 전문성 미흡, 운영자의 여성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과 취업연계 미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성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주부교육이 지녀야 할 프로그램의 특성-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 수강료, 프로그램의 효과 등의 프로그램 성격적 측면, 교육시설 측면, 강사의 전문성이나 장소이용의 편리성, 이용자의 요구도 반영 등의 운영방법, 프로그램제공방법 등-에 대한 요구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주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세가지 차원-개인적 차원, 가정차원, 사

회적 차원-을 고려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주부교육의 활성화방안과 관련된 요구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운영자집단과 프로그램 이용자집단으로 연구대상을 구분하여 상이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을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운영자집단

주부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주부교육의 범주와 내용 및 분류 기준 등 주부교육의 개념들을 도출하고 주부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부교육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집단과 실제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의 운영자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운영자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선행연구(김재인, 2001; 곽삼근, 2001)를 참고로 운영주체(민·관/영리·비영리 여부)와 운영목적(여성사회교육전담이나 주교육대상이 여성이나)을 고려하여 사회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은 4가지-①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②백화점이나 언론사 운영의 문화센터 ③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구나 동 등 지자체 중심의 교육기관 ④주부대학 등 각종 민간단체 운영의 교육기관-로 분류하였으며, 각 해당기관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전문가 8명과 운영자 16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내용을 토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업주부집단

주부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그리고 전업주부들이 생각하는 활성화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재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업주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분류한 교육기관의 유형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소속된 지역인 서울, 울산, 전주지역의 사회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업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부실기재된 55부를 제외한 44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전문가, 운영자용의 경우 주부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주부교육의 분류 및 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법과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문항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구는 인구학적 변인, 현재 참여중인 교육프로그램의 수와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월평균 수강비용 등의 일반적인 참여실태를 직접 기입하게 하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참여중인 교육기관의 종류는 앞서 분류된 유형을 보기로 제안하여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동기와 교육기관의 선택이유, 요구도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김양희 외, 1994; 김재인 외, 1995; 이성희·이승미, 1999; 곽삼근, 2001)를 참고로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먼저 프로그램의 참여동기 및 교육기관의 선택이유를 제시하여 가장 적합한 동기와 선택이유를 1개씩 고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 참여중인 프로그램의 참여효과 및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프로그램의 효과척도의 신뢰도계수는 $\alpha=.87$ 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특성 및 프로그램내용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요구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특성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87$ 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주부교육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문항은 앞서의 선행연구와 전문가, 운영자집단의 면접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는데, 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유형은 5점 리커트형으로서 신뢰도계수는 $\alpha=.63$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지역 (N=445)	서울	164(36.9)	학력 (N=441)	중졸 이하	22(5.0)
	전주	142(31.9)		고졸	152(34.5)
	울산	139(31.2)		대졸	200(45.4)
연령 (N=444)	20대	24(5.4)	월평균소득 (N=430)	대학원졸	67(15.2)
	30대	141(31.8)		100만원미만	27(6.3)
	40대	185(41.6)		100-199만원	96(22.3)
	50대이상	94(21.2)		200-299만원	163(37.9)
프로그램 교육기관 (N=418)	문화센터	125(29.9)	300-399만원	72(16.7)	
	여성관련 단체	103(24.6)	400만원이상	72(16.8)	
	지자체 운영기관	106(25.4)			
	민간단체 운영기관	84(20.1)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부교육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에 관한 요구도, 구체적인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 요구도와 활성화방안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먼저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36.9%로 많고, 울산 및 전주가 각각 31.2%, 31.9%를 차지한다. 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41.6%, 30대가 31.8%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50대 이상인 경우가 21.2%, 20대가 5.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업주부들의 평균연령은 42.7세이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45.4%로 가장 많고, 고졸이 그 다음으로 34.5%, 대학원졸 이상이 15.2%, 중졸이하는 5.0%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다. 가계 월평균소득은 200만원대가 37.9%로 가장 많고, 100만원대인 경우가 22.3%, 300만원대인 경우가 16.7%이며, 400만원 이상이 16.8%, 100만원미만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교육기관은 앞서 구분한 유형별로 표집한 결과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가장 많은 29.9%를 차지하며, 민간단체 운영 기관의 경우가 20.1%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주부교육의 개념, 범주 및 내용구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목적을 위해 주부교육의 전문가집단과 운영자집단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주부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주부교육의 범주와 내용구성의 원리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부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주부교육관련 전문가집단과 운영자집단은 주부교육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보이며 일부는 서로 상충된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주부의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여 주부교육의 정의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문가집단은 개념 중심으로 주부교육의 정의를 접근하는데 반해, 운영자집단은 주부교육의 효과를 개념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집단의 입장에 따른 접근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면접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두 가지 측면-주부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성격(효과)-에서 주부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주부교육의 대상 측면에서 보면, 좁은 의미로 주부교육은 기혼여성(주부)을 대상으로 정규학교교육을 제외한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교육활동 즉 국가기관, 단체, 각종 교육기관 및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다. 주부교육 대상의 범주를 보다 확산시킨 넓은 의미에서는 남편, 결혼상태, 연령을 불문하고 주부의 역할(가정경영인)을 하는 사람, 예비주부나 예비가정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성격을 기준으로 주부교육을 정의한다면, 주

부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제공, 문제해결에 필요한 교육 등 보다 주부 개인에 초점을 둔 의견에서부터 주부교육이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또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재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지닌 시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부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하며,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성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주부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주부교육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개념 접근은 궁극적으로 왜 주부교육이 필요한가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세 가지 차원의 체계-개인적 차원, 가정차원, 사회적 차원-에 속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부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주부교육이란 기혼여성(주부)을 대상으로 정규학교교육을 제외한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서, 여성 개인으로서의 삶의 만족과 여성 의식함양,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사회참여촉진 및 민주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주부교육의 범주와 내용

주부교육의 대상자인 주부는 세 가지 차원의 체계-개인적 차원, 가정차원, 사회적 차원-에 속하는데, 한 개인이자 여성으로서의 주부 자신, 가정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정내 역할담당자,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주부교육에서 포괄해야 하는 범주와 내용분류에 관해 질문한 결과, 전문가집단은 개인-가정-사회영역이 주부교육에서 모두 포괄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주부교육프로그램이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세가지 차원에 모두 소속되어있는 주부의 전인격적 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적 차원에서의 여가나 취미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이미 기존에 너무 많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식이나 사회의식차원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한편 운영자집단은 개인, 가정, 사회라는 세가지 차원의 분류방식에 동의를 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담당해야하는 교육 내용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사회변화의 동인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여성적 가치가 사회의 중심가치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사회주부로서의 역할인식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주부교육에서 다루어져야할 내용에 관해서는 영역별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운영자집단의 의견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여성의식향상교육, 리더쉽증진교육, 외국어 등의 능력이나 개인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능력개발교육, 기술교육 등을 제안하였으며, 가정의 측면에서는 가정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자녀교육·부모역할교육,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교육,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교육, 가사노동의 과학화 및 효율화방안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참여 또는 재진입의 기반이 될 직업교육(취업, 창업, 부업교육 포함), 인간관계 훈련 및 시민참여의식교육, 사회참여를 위한 모니터링교육, 자원봉사교육,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과 운영자집단이 제안한 주부교육의 방향과 범주 및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업주부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실태 및 요구도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전업주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에 의해 실시된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참여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참여교육프로그램의 내용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1개인 경우가 69.0%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평균 1.4개로 나타났다. 참여 프로그램은 스포츠/건강 관련 프로그램(28.8%), 실용/여가 프로그램(26.5%), 가정소득 증대 프로그램(15.9%), 문화/예술 프로그램(15.2%)이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 소비생활개선 프로그램(4.0%)이나 컴퓨터와 정보생활 프로그램(4.0%), 주부 자아찾기 및 리더쉽증진 프로그램(2.6%)의 순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자녀양육이나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 주거/건강관리프로그램의 수강자는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본 연구자들이 제시한 주부교육 프로그램 중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가정운영 프로그램, 시간관리 프로그램, 재테크 프로그램, 노후생활설계프로그램, 시사문제 프로그램, 환경문제와 재활용 프로그램, 공동체생활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의 수강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미·교양·여가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곽삼근, 2001)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월 수강료는 무료인 경우가 17.2%이며, 1만원이 20.5%, 2만원이 14.9%이고, 3만원인 경우가 24.7%로 가장 많았다. 월별 수강료의 평균은 2만6천원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은 2개월 이하인 경우가 41.7%를 차지하였으며, 1년 이하가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반면 25개월 이상이 17.4%나 되어 참여기간의 평균은 21.4개월로 나타났다.

2) 주부교육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교육기관 선택이유

현재 수강 중인 주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자

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38.4%)가 가장 많고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29.1%)이 그 다음이며, 건강 관리(8.6%), 전문적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8.3%), 자아성찰 및 삶의 의미 추구(6.5%),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습득(4.4%), 인간관계 확대의 기회(0.8%)의 순이다.

<표 2> 프로그램 참여 실태

변 수	빈도 (%)	변 수	빈도(%)		
참여 프로그램수 (N=432)	1 개	298 (69.0)	참여 프로그램 (N=427)		
	2 개	101 (23.4)			
	3 개	24 (5.5)			
	4개이상	9 (2.1)			
	평균 1.4개			스포츠/건강	123 (28.8)
				실용/여가	113 (26.5)
				가정소득 증대	68 (15.9)
				문화/예술	65 (15.2)
				소비생활개선	17 (4.0)
				컴퓨터와 정보생활	17 (4.0)
프로그램 수 상요 (N=396)	무 료	68 (17.2)	프로그램 참여기간 (N=362)		
	1 만 원	81 (20.5)			
	2 만 원	59 (14.9)			
	3 만 원	98 (24.7)			
	4-7 만원	82 (20.7)			
	8-10만원	8 (2.0)			
	평균 2만6천원			2개월 이하	151 (41.7)
				3 - 12개월이하	100 (27.6)
				13- 24개월이하	48 (13.3)
				25개월이상	63 (17.4)
		평균 21.4개월			

참여 중인 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47.0%)이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되며, 다음으로는 다니기 편리(22.5%), 수강료 저렴(14.5%), 유명강사가 있어서(6.8%), 친구 권유로(6.1%), 교육시설 및 환경의 쾌적함(3.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교육기관 선택이유

변 수	항 목	빈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동기 (N=385)	나 자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기회	148 (38.4)
	여가 활용 / 취미생활	112 (29.1)
	건강 관리	33 (8.6)
	전문적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32 (8.3)
	자아 성찰 및 삶의 의미 추구	25 (6.5)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습득	17 (4.4)
	가정생활에 도움 되는 지식 습득	15 (3.9)
교육기관 선택이유 (N=413)	인간관계 확대의 기회	3 (.8)
	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194 (47.0)
	다니기 편리	93 (22.5)
	수강료 저렴	60 (14.5)
	유명 강사	28 (6.8)
	친구 권유	25 (6.1)
	교육시설 및 환경의 쾌적함	13 (3.1)

3)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

참여중인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먼저 환경문제나 소비문제, 사회문제나 시사에 대한 관심의 증가, 이웃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 증가, 자원활동에 대한 의욕고취의 영역을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 습득, 가정살림에 유용한 정보·지식 습득, 취업에 도움문항의 영역을 실용적 효과영역으로,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하거나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가족관계가 원활해진다는 문항의 영역을 삶의 질 향상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전업주부들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실용적 효과영역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3.71)이 전체 문항 중 두 번째로 높았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적은 2.6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업주부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며, 실용적 측면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습득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고, 가정살림에도 어느 정도 유용하지만 취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현재 주부들이 참여중인 교육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안한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세가지 유형-개인지향, 가정지향, 사회지향-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별 차이를 보여 개인지향 프로그램 참여자에 비해 가정지향프로그램이나 사회지향 프로그램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부교육 프로그램 효과의 요인부하량과 요인별 문항

요인명	프로그램 효과	문항별 평균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별 평균
사회적 관심	환경문제나 소비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3.50	.829			3.43
	사회문제, 시사에 대한 관심 증가	3.45	.934			
	이웃, 타인에 대한 관심 증가	3.50	.802			
	자원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	3.29	.678			
실용적 효과	전문적 지식, 정보의 습득	3.71		.799		3.24
	가정살림에 유용한 정보, 지식, 기술 습득	3.40		.745		
	취업에 도움	2.65		.609		
삶의 질 향상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함	3.97			.627	3.74
	인간관계의 확대	3.66			.465	
	가족관계가 원활해짐	3.59			.849	
고 유 치			2.95	2.08	1.66	
전체 변량 (%)			29.5	20.8	16.6	
누적 변량 (%)			29.5	50.3	66.9	

<표 5>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프로그램의 총효과 차이

변수	효과	Duncan	F값
개인지향 프로그램	3.37	a	11.89 ***
가정지향 프로그램	3.87	b	
사회지향 프로그램	3.66	b	
전체	3.46		

<표 6> 프로그램별 만족도

프로그램 유형 (N,%)	프로그램 내용 (N)	프로그램 별만족도	프로그램 유형별만족도	Duncan test	F값
개인지향 프로그램 (N=208, 70.3%)	실용/여가 프로그램 (113)	3.93	3.85	a	6.436 **
	문화/예술 프로그램 (65)	3.82			
	스포츠/건강 관련 프로그램 (120)	3.82			
가정지향 프로그램 (N=27, 6.4%)	자녀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3)	4.67	4.33	b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5)	4.40			
	소비생활 개선 프로그램 (17)	4.24			
	주거/건강관리 프로그램 (2)	2.50			
사회지향 프로그램 (N=99, 23.3%)	컴퓨터와 정보생활 (17)	3.94	4.01	a	
	자원봉사 프로그램 (3)	4.00			
	주부 자아찾기 및 리더십 증진 (11)	3.82			
	가정소득 증대 프로그램 (68)	4.06			
전체 (424)		3.92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현재 참여중인 주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3.9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유형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정지향적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다른 두가지 유형의 참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자녀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4.67),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4.40), 소비생활 개선 프로그램(4.24), 가정소득 증대 프로그램(4.06), 자원봉사 프로그램(4.00)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적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부들은 실용/여가, 문화/예술, 건강/스포츠분야의 개인지향적 교육프로그램에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지만, 개인지향적 프로그램의 수강자가 교육의 효과를 가장 낮게 인지하는 반면, 가장 적은 수가 참여하고 있는 가정지향적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기관이 앞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가정지향적 프로그램의 수강자가 매우 적은 것은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교육기관에서 개설된 경우가 거의 없고 이에 대한 교육기관의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주부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와 활성화방안

주부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와 활성화방안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전문가 및 운영자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특성별 요구도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이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가, 그리고 구분된다면 어떤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1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4개의 요인이 선정되었는데, 4개의 요인을 각각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의 성격, 프로그램 제공방법, 교육시설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요구도의 평균점수를 보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성격과 관련된 영역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이 제공방법이나 교육시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부교육프로그램 특성의 세부항목별 요구도 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강사의 전문성(4.43), 직원의 친절(4.34), 장소이용의 편리성(4.33), 교육장소의 쾌적성(4.30), 교육기간의 적절성(4.28), 자기발전의 기여도(4.24)가 평균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되었다.

<표 7> 프로그램 특성별 요구도의 평균, 요인부하량과 요인별 문항 및 요인별 평균

요인명	세부 항목	문항별 평균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별 평균
프로그램의 성격	프로그램의 다양성	3.94	.637				3.94
	저렴한 수강료	3.95	.626				
	실생활에 유용	3.99	.717				
	취업에 활용	3.48	.621				
	정보수집의 용이성	3.94	.675				
교육 시설	자기발전의 기여도	4.21	.586				3.66
	휴식공간 충분성	3.63		.492			
	부대시설의 적절성	3.71		.703			
프로그램의 운영	강사의 전문성	4.43			.621		4.30
	직원의 친절	4.34			.712		
	장소 이용의 편리성	4.33			.707		
	이용자 요구 반영도	4.17			.708		
	교육장소의 쾌적성	4.30			.801		
프로그램 제공방법	교육기간의 적절성	4.28			.573		3.09
	재택강의 개설 여부	3.25				.381	
	참가자 연령의 유사성	2.77				.875	
	참가자 생활수준의 유사성	2.47				.891	
	이용자의 참여도	3.86				.336	3.74
	고 유 치		3.98	3.22	1.91	1.73	
	전체 변량 (%)		20.97	16.95	10.03	9.12	
			20.97	37.92	47.94	57.06	(전체 평균)

2) 주부교육프로그램 내용별 요구도

주부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반영하는 20문항에 대해 앞서 제안한 주부교육프로그램의 개념틀-개인, 가정, 사회적 측면-을 지지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5개 요인이 선정되었는데, 이 5개의 요인은 각각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원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프로그램, 여가/취미 프로그램, 주거/건강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5개요인 중 자원관리, 가족관계, 주거/건강 프로그램은 가정 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가정지향적 프로그램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개인적 측면, 가정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분류방식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표 8 > 프로그램 내용별 요구도의 평균, 요인부하량과 요인별 문항 및 요인별 평균

요인명	프로그램 내용	문항별 평균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별 평균
사회참여 프로그램	정치·경제·사회 등 시사	3.41	.421					3.66
	환경문제와 재활용	3.62	.732					
	컴퓨터와 정보생활	3.79	.582					
	자원봉사 프로그램	3.67	.714					
	주부 자아찾기/ 리더십 증진	3.69	.682					
	공동체생활문화 만들기	3.62	.732					
자원관리 프로그램	가정소득 증대 프로그램	3.76	.512					3.69
	합리적인 가정운영 프로그램	3.75		.568				
	시간관리 프로그램	3.64		.688				
	재테크 프로그램	3.66		.600				
가족관계 프로그램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	3.84		.765				3.70
	소비생활 개선 프로그램	3.63		.665				
	자녀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3.75			.811			
주거/건강 프로그램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3.59			.706			3.88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3.81			.801			
여가/취미 프로그램	주생활관리 프로그램	3.78				.738		3.76
	영양/건강관리 프로그램	3.99				.495		
	실용/여가 프로그램	3.59				.712		
	문화/예술 프로그램	3.69					.775	3.74
	스포츠/건강 관련 프로그램	4.03					.608	
	고 유 치		3.30	2.84	2.42	1.66	1.54	
			16.52	14.20	12.09	8.33	7.68	(전체 평균)
			16.52	30.72	42.81	51.10	58.78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별 요구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스포츠/건강 관련 프로그램(4.03)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양/건강관리 프로그램(3.99)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평균수명

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것, 이에 따른 적절한 운동과 영양에 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3.84),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3.81), 컴퓨터와 정보생활 프로그램(3.79)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서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상 역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려는 부양역사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증진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자녀수의 감소와 자녀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컴퓨터와 정보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정보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는 인터넷 보급, 그리고 정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정내 전업주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과 사회간 정보격차 해소에 전업주부들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정과 사회간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적 통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영역별 요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은 사회참여프로그램영역이며, 그 중에서도 정치·경제·사회 등 시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 영역 중 앞서 언급한 컴퓨터와 정보생활, 그리고 가정소득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교육수요자인 전업주부들은 실용적 효과의 측면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앞서 주부교육의 전문가집단과 운영자집단에서 세가지 영역의 내용이 모두 포괄되어야 하며, 사회변화의 동인으로 여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실용/여가/취미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주부교육에서는 시민참여교육이나 여성의 식교육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전문가집단과 운영자집단 모두 주부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법으로 주부의 수요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토대로 전문가나 기획자의 의도를 결합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 실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입장차이를 줄이면서 보다 발전적인 주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업주부들은 비교적 높은 동의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수준별/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4.20)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교육내용 실천의 기회 제공

(3.88), 수강자 중 전문가 양성(3.76),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 교류의 장 마련(3.69)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전문가·운영자집단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일회적인 소모성 교육으로 끝나버리는 현재 여성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운영자들은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과 같은 관 주도의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요자인 주부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 행정적 지원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법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주부참여의 확산을 위해서는 주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내, 이린이집이나 학교단위 등 주부가 모일 수 있는 곳이나 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표 9>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에 대한 요구도

활성화 방안	요구도(평균)
수강자 중 전문가 양성	3.76
종료후 지속적 교류의 장 마련	3.69
교육내용 실천의 기회 제공	3.88
수준별/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	4.20

4. 주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원리

지금까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전업주부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주부의 삶과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나아가 잠재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 하에 주부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앞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주부교육프로그램의 내용구성과 개발방법

먼저 주부교육프로그램의 내용구성면에서 보면, 기존의 취미/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부교육관련 전문가, 운영자 뿐 아니라 참여중인 전업주부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전문가, 운영자집단은 주부를 세가지-개인, 가정, 사회적 측면- 체계에 속한 대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집단은 세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참여 중인 전업주부집단의 교육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요구도를 보면, 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거나,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필요로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서도 건강과 영양, 스포츠나 운동프로그램, 노후생활설계나 부모자녀관계증진, 컴퓨터와 정보생활, 가정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실용적 특성을 지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실제 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 운영자집단은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교육과 달리 성인교육은 자기계획적이고 자기동기적인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학습하기를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습하기(이연숙, 1998) 때문에 특히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그렇지만 주부교육프로그램은 한 개인이자 가정살림의 담당자로서,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부의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부의 잠재된 교육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나 운영자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 다만 시민참여교육이나 여성의식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바람직한 특성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예를 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율성 향상, 흥미제공 등-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들은 심도있는 연구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을 통한 정교화 및 전문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식

프로그램 특성별 요구도를 검증한 결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모든 교육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특정영역에 편중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하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는 전문적인 노력의 부족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기관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수준별/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육기관을 특성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는 장소의 접근가능성, 즉 장소 이용의 편리성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며, 여

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 등은 지금보다 더욱 더 기관의 목적을 고려한 특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 특히 전문가, 운영자집단은 주부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대상의 소속지역, 계층, 가족생활주기, 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대상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 것은 강사의 전문성이다. 그렇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한정된 예산 하에 전문적인 강사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수강자 중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전문가와 운영자집단 그리고 실제참여자들도 주부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교육내용의 실천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운영자집단에서는 강사의 발굴과 재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교육기관이 강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뱅크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강사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주부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이용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식-토론이나 실습, 견학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채택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제공방법이 되는데, 이는 특히 교육기관에의 접근성이 부족한 주부들-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 장애인 주부, 취업주부 등-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주요한 자산이 되므로, 가정과 사회간의 공간적 제약에 따른 격차 없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가정과 사회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인터넷교육에 적합한 교육컨텐츠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운영자들은 현재와 같은 관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교육방식에는 한계가 많으며, 기존의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프로그램의 경우 작은 지역단위라는 점-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혹은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단위 등-,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주부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실용/여가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주부의 시야를 넓혀주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부 스스로가 수동적인 교육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교육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된 주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수요자의 요구도로부터 출발하여 주부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자의 의식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 잠재된 수요

를 현재화하기 위한 동기요인의 고려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교육 대상자에 밀착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하는 주부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와 같은 구성원리의 모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녀야할 개인으로의 기본능력과 품성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온 가정, 그 중에서도 전업주부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한 전업주부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폭증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가치, 구성, 활용에 대한 평가, 선택, 판단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능력인 인적자원을 사회변화 추진의 원동력으로 파악(강인애, 2000)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고갈되지 않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온 전업주부집단의 인적자원개발은 주부 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부가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본격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 하에 전업주부집단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부교육의 전문가집단과 교육기관의 운영자집단, 그리고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전업주부들은 대체로 여가/취미/실용 영역의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으며, 나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거나 여가 활용이나 취미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는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가/취미/실용 등 개인지향적인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과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 및 만족도와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여전히 스포츠나 운동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취미나 여가영역보다는 영양과 건강 프로그램, 노후생활설계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증진프로그램, 컴퓨터와 정보생활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취미/실용영역에 편중된 현재 교육프로그램의 참여현황은 주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질향상과 삶의 만족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의식향상이나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확대, 개인 차원에서의 정보활용능력, 그리고 가정살림의 운영자로서 보다 주체적으로 가정살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개발에 관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실시될 때, 가정과 사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며,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성을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문가와 운영자집단에서 교육대상인 주부를 개인, 가정, 사회의 세가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역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운영자 입장에서 앞으로 주부교육에서 포괄해야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식, 그리고 주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교육참여자 역시 상당부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성을 위한 주부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 전략인 주부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과 구성원리에 관해서는 앞서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원리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주부교육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앞으로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실천적인 노력 역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집 수 일 : 2002년 11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2월 20일

【참고문헌】

- 경기도개발연구원(200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도개발연구원.
- 박삼근(2001). 21세기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국제 세미나-21세기 한·일 여성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자료집. 47-76.
- 교육부(2002). 여성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미량(2002). 우리나라 여성정보화의 현황분석과 정보화를 통한 여성 삶의 질적 변화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9-42.
- 김선미·이승미(2000). 가사노동을 통한 주부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논의. 한국가정과학회지 3(2), 47-57.
- 김선미·송혜림·이승미(2001). 주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지원체계. 대한가정학회 제 54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미래의 여성, 가정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발표집. 91.

- 김선미·이기영(2002).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관점에서 본 전업주부 정책. *한국생활과학회지* 11(1), 13-29.
- 김양희·이춘아·김이선(1994).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김노마·이정아·김인순(1995).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1998). 아·태지역 여성사회교육 비교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 외(2000).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 외(2001). 여성교육개론. 서울:교육과학사.
- 김재인(2001). 여성평생교육의 발전배경.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21세기 한·일 여성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 세미나 자료집. 3-22.
- 박성정 외(2001). 여성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송혜림(2002). 한국 기혼여성들의 정체감과 역할 비중 비교연구 : 여성의 중심성과 한국문화의 특유성. 제 6회 한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세계적 전망에서의 한국학” 자료집. 218-224.
- 양애경(1998).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구민회관 활용 방안 연구 - 사회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오노 테루코(2001). 행정시책으로 본 여성의 생애교육학습의 동향.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21세기 한·일 여성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 35-46.
- 이성희·이승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연구 : 전주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18.
- 이승미(1999).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차 학술대회 자료집*. 98-159.
- 이연숙(1998).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서울:학지사.
- 어무림(2000). 인적자원개발 : 다학문적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5차 정책포럼. 3-29.
- 임정빈·김양희·이기영·홍형욱·계선자·이정숙·김순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63-180.
- 정숙경·김인순(2001). 기혼여성의 정보불평등 현황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정문(2000).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전산원.
- 조희급 외(2002). 가정생활복지론. 서울:신정.